



김익식 의원

“대구 대기환경 개선은 경기불황 탓” “2020년 인구예측 빛나간 상황 대비”



김충환 부의장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때 대구 시의원의 2가지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대구의 대기 질이 개선된 것은 대구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2020년 대구인구가 예측보다 적은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

김익식 의원(서구)은 이날 “대구의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대구시측의 설명에 대해 “지난 9월 대구의 공장 가동률이 69.1%이고, 최근 대구지

▣시의회 예산결산위 눈길 끈 발언 2題

역 주요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이 2003년보다 10% 정도 줄었다. 이는 경기가 나빠졌다는 반증”이라며 “대기오염은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주 원인인데, 대기가 개선된 것은 대구시의 환경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대용 환경녹지국장은 “지금까지의 대구시 환경정책은

수질개선과 나무심기에 주력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충환 부의장(북구)은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 대구의 인구를 28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2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280만명을 가정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것인데, 추정인구보다 적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때 대구의 인구를 350만명으로 보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공급과잉이 된 것도 있다. 수요 예측 잘못은 결국 시민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은 이에 “대구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것이어서 통계청 예상치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